

목차

연수 안내

-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울산 애(愛) 한바퀴(문화와 예술 품은 울산 역사 기행)> 실시 계획

울산 애(愛) 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역사기행

5기 한국사 속의 울산사람

- 현장 답사 지도 08
- 고헌 박상진 09
- 외솔 최현배 21
- 학파 이에 29
- 난계 오영수 39

부록

- 연수대상자 명단 49
- 강사평가 설문조사표 51
- 이수증 출력방법 52
- 울산교육연수원 신청사 안내도 54
- [생활 속 거리두기] 연수 중 단계별 지침 57

01

연수 안내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울산 애(愛) 한바퀴(문화와 예술 품은 울산 역사 기행)>
실시 계획

울산애^愛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역사기행

5회차 한국사 속의 울산사람

세부일정

일자 11월 20일(토)

인원 40명

- 09:00 | 출발 | 울산교육청
- 09:20 ~ 10:10 | 박상진 의사 생가, 역사공원
- 10:20 ~ 11:10 |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생가
- 11:30 ~ 12:20 | 이에 - 석계서원, 울산 학성이씨 근재공 고택
- 12:30 ~ 13:30 | 점심
- 13:40 ~ 14:30 | 오영수 문학관
- 14:30 ~ 15:30 | 웰니스 체험
- 16:00 | 도착 | 울산교육청

전문 해설

이 현 호 선생님 배 문 석 선생님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실시 계획

울산 애(愛) 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 역사 기행)

I 목적

- 울산에 대한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 역량 강화 지원
- 지역사회 의식 고취,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 생태계 상생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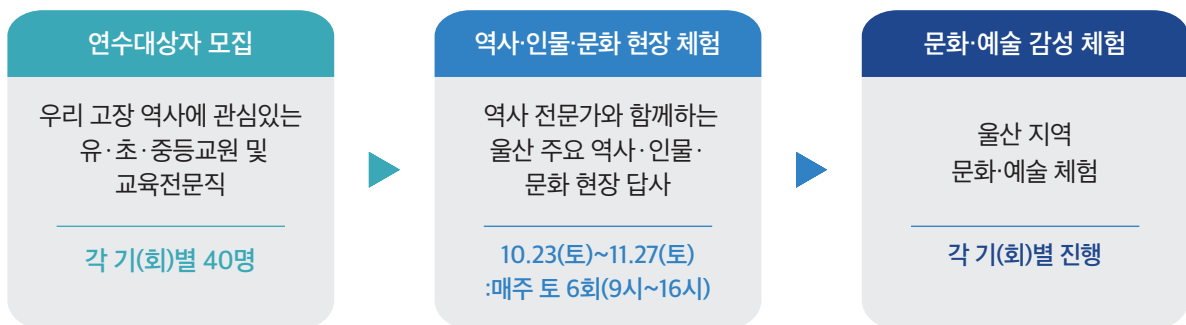
II 방침

- 운영방법 | 역사 및 문화·예술 연수 경험이 풍부한 운영 기관(업체)을 통한 위탁운영으로 연수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운영
- 과정구성 | 울산 권역별·주제별에 따른 현장답사 체험연수 6회(매주 토요일 실시, 각 기<회>당 6시간)로 구성
- 운영관리 | 집합 연수 운영 및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주관, 업무 담당자는 비정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실사로 질 관리
- 연수진행 | 각 기별 차량 2대(1대에 20명 전후로 인원 배치)로 나누어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연수 방법과 장소 변경 가능
- 연수시간 인정 | 1일 연수 참여자는 6시간의 직무연수 시간 인정

III 방침

- 연수기간 | 2021. 10.23.(토) ~ 11.27.(토) <매주 토요일 9시~16시, 6회 실시>
- 연수대상 | 유·초·중등 전 교원 및 교육전문직 240명<각 기(회)별 40명>
- 연수 방법 | 집합 연수
- 연수 장소 | 각 기(회)별 연수 일정표에 따라 상이함
- 연수 시간 | 각 기(회)당 6시간 (총 6~36시간)

IV 과정설계



IV 세부 계획

(울산 愛(애) 한바퀴) 역사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울산 지역 현장답사 체험

• 연수 개요

기간	대상	주요내용	비고
10.23.(토) ~11.27.(토) (매주 토요일 9시~16시, 6기 운영)	유·초·중등 전 교원 및 교육전문직 240명 ※ 각 기수별 40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전문가와 함께하는 울산 권역별·주제별 일정에 따른 역사·문화 기행 지역 역사·문화 자원 이해 및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만남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실천 역량 강화 	위탁 운영

• 세부 일정 및 내용

기간	대상	주요내용	비고
1기	10월 23일	울산의 출발, 고래를 찾아	웰니스 체험
	울산암각화박물관-반구대바위그림-집청정-천전리각석-장생포고래박물관		
2기	10월 30일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 성곽도시 울산	문화예술공연
	병영성-울산왜성(학성공원)-충의사-서생포왜성		
3기	11월 06일	두 마을 이야기, 방어진과 일산	웰니스 체험
	방어진역사관-방어진일대-슬도-출렁다리-대왕암-울기등대-보성학교전시관-서진문묘소		
4기	11월 13일	울산의 중심, 원도심을 걷다	문화예술공연
	울산동헌 일대-성남동 일대-서덕출공원-구 역전시장(여인숙골목)		
5기	11월 20일	한국사 속의 울산사람	웰니스 체험
	박상진 생가-외솔기념관,최현배 생가 -이예(석계서원,근재공고택)-오영수문학관		
6기	11월 27일	울산은 왜 공업도시가 되었나?	문화예술공연
	울산박물관-장생포문화창고-장생포고래박물관-울산대학교전망대-소금포역사관-울산노동역사관		

•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 연수대상자는 직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홈페이지 (<https://edu.ueti.or.kr>)에서 신청하고 선발은 신청 순서에 의함. 단, 1인 1기(회)만 신청 원칙(복수 신청자는 신청과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 신청 인원이 교육정원을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추가모집 실시(선착순 모집이며, 복수신청도 가능)

• 이수 조건 안내

- 대상자 선정 후, 연수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람

【 이수 조건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제13조(연수의 이수기준)

- 총 연수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한 자
- 다만,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①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으로 결석한 경우, ②불가피한 출장(증빙서류 제출 시), ③코로나19 관련 결석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시)에 한하여 10분의 8 이상을 이수한 자도 이수처리 한다.

• 연수생 협조 및 준수사항

- 긍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참가하여 알찬 연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I 기대효과

- 교원들의 울산 지역 탐방을 통한 지역사랑의식 고취 및 내 고장 바로 알기 전문성 함양
- 지역사회 역사·문화·인물·예술 자원이 연계된 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프로그램 구안·적용 역량 강화
- 연수 참여 교원 중심의 현장 적용사례 나눔 활동과 지속적 연찬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
- 지역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감성 및 심미안적 역량을 높이고, 울산 예술·문화인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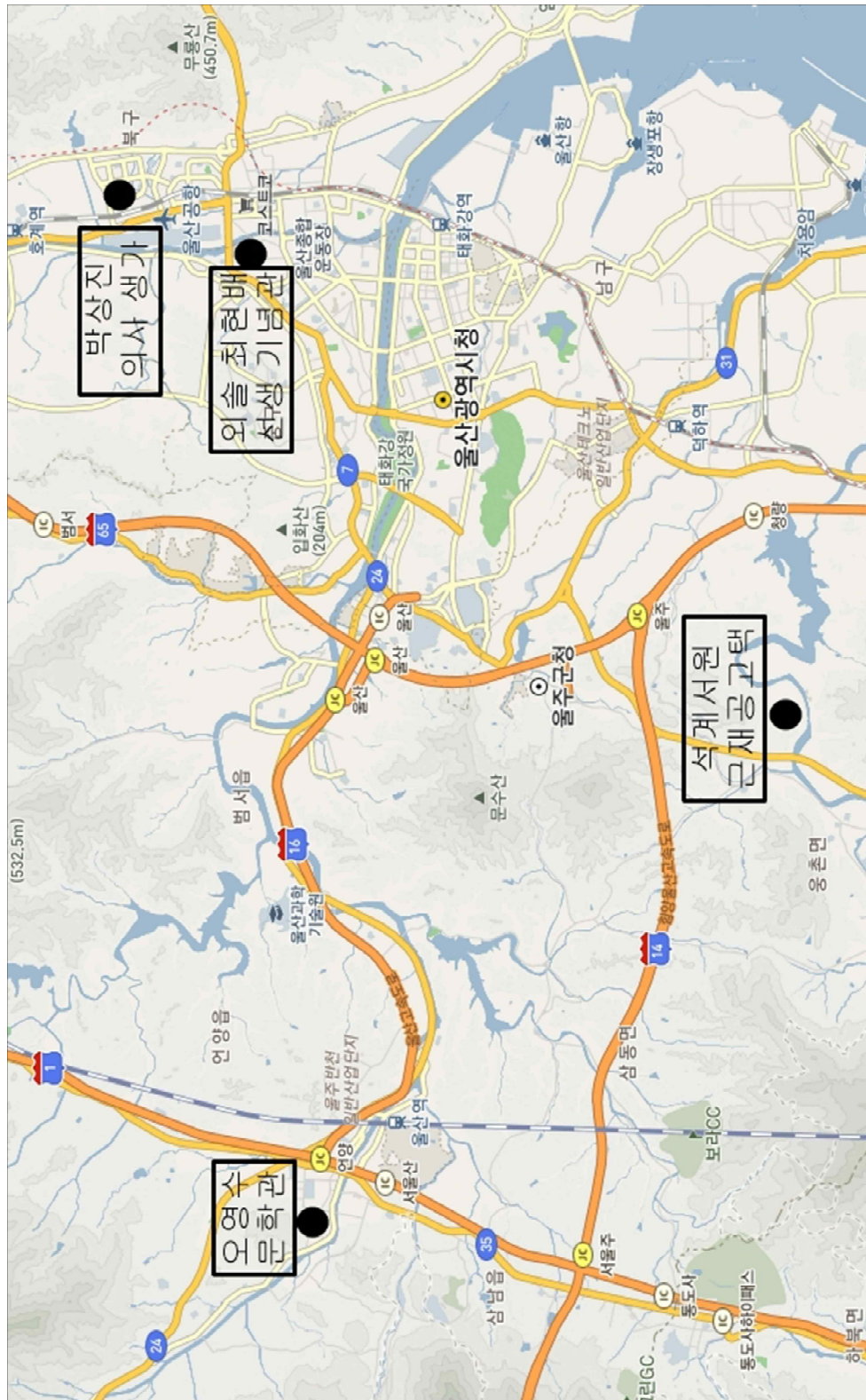
02

울산 애(愛) 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역사기행

5기 '한국사 속의 울산사람'

-
- 현장 답사 지도
 - 고헌 박상진
 - 외솔 최현배
 - 학파 이에
 - 난계 오영수

○ 현장 답사 지도



■ 고헌 박상진(固軒 朴尙鎭, 1884~1921)

1. 세상에 태어나다

박상진의 성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집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집안은 8대조인 괴천 박창우(1636~1702) 때 경북 영천에서 울산으로 이주하였으며, 18세기 말 복구 송정에 정착하였다.

박상진은 1884년(고종 21) 12월 7일(음) 박시규(1861~1928)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태어난 지 100일 만에 큰 아버지 박시룡(1851~1930)에게 입양되었다. 10촌 형인 박규진에게 한학을 배웠고, 박규진과 인연이 있는 허위(1855~1908)의 문하로 들어갔다.

성장기의 박상진은 그의 가족, 그리고 스승인 허위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1) 박상진과 그의 집안

박상진은 밀양 박씨로 그의 집안은 8대조인 박창우 때에 이휴정 이동영(1635~1667)과의 인영으로 영천에서 울산으로 이주하였으며, 18세기 말 송정에 정착하였다. 박상진의 집안은 대대로 퇴계 이황의 학맥을 이어온 전통 유림 가문이며, 양아버지와 친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다. 이러한 가풍은 그의 생애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경주 녹동 집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제공)



박상진 의사 생가
-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호

박상진의 할아버지인 박용복은 1870년(고종 7) 식년 진사시에 입격(3등 제 93인)하였고, 암행어사의 추천으로 북부도사에 제수되었다. 때문에 도사공, 진사어른, 도사 어른이라 불렸다. 그는 이재에도 밝아 물려받은 재산 2천 석을 7천 석으로 늘려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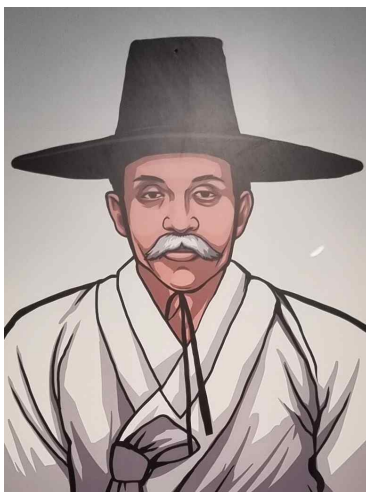
바닷가 출신을 경시하는 풍조로 울산에 사는 것이 과거시험에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여 경주군 외동면 녹동으로 이사하였다. 녹동에 시룡과 시규 두 아들의 집도 장만해 주어, 박상진은 4세 무렵부터 경주에서 자랐다.

박상진의 양아버지 박시룡은 부인인 창녕 조씨 사이에서 후사가 없자, 동생 박시규의 아들은 박상진을 입양하였다. 그는 1890년(고종 27) 경인 별시 문과 을과 3인으로 급제하였고, 홍문관 시독, 봉상시 봉사, 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박상진의 친아버지 박시규는 24세에 박상진을 낳았다. 그는 삼촌 박헌복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1885년(고종 22) 식년시 을유 문과 을과 4인으로 급제한 뒤, 성균관 전적, 사간원 정언, 홍문관 시독, 장례원 장례를 지냈다. 1910년 경술국치 직전에는 정3품 규장각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2) 사제동행

박상진은 7세(1890년) 무렵 10촌 형인 창고 박규진 문하에서 한학을 배웠다. 박규진은 경북 안동으로 가서 퇴계의 학통을 이은 정재학파 학맥의 척암 김도화(1825~1912) 문하에 입문하였다. 혼란했던 시기 그는 세상의 번잡함을 피하고자 산림처사를 자처하며, 경북 진보군 흥구(현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로 이주하였다. 1898년 무렵 박상진도 스승을 따라 진보로 갔고, 그곳에서 박상진의 삶에 방향성을 제시해 준 스승 왕산 허위와 만나게 된다.



왕산 허위



경북 영양 흥구리 전경

왕산 허위는 1855년(철종 6) 경북 선산군 구미면 임은리(현 구미시 임은동)에서 태어났다. 박상진은 스승 박규진과 허위의 인연으로 허위의 문하에 입문하였다. 허위가 관직에 올라 상경하자 박상진은 스승의 뒤를 따라 상경하였다.

허위는 관직 생활을 하며 신학문과 신사상을 받아들여 10개 조의 구국개혁방안을 제출하고, 제자인 박상진에게도 신학문과 신사상의 수용을 권유하였다. 1904년 박상진은 고향으로 내려와 스승의 10개 구국개혁방안 중 하나인 노비 해방과 적서 차별 철폐를 시행하였다.

1907년 정미의병 때 이인영과 13도 창의군을 조직하여,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공하였다. 허위는 서울진공작전 이후 임진

강과 한탄강 유역을 무대로 항일전을 재개하였지만, 일제에 붙잡혀 1908년 9월 27일(음) 경성감옥(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스승의 순국 소식을 들은 박상진은 경성감옥으로 달려가 시신을 인수하고 장례를 치렀다.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허위와 박상진의 모습은 ‘사제동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허위의 10개 구국개혁방안

1.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기르며, 재주가 우수한 자를 골라서 외국에 유학시킬 것
2. 군정軍政을 뒤아서 불시의 변에 대비하고 군사는 농사에서 나오고 농사는 군사에서 나오는 것이니 춘추로 무술을 연습하고 출입하면서 농사군農事軍과 교환할 것
3. 철도를 증설하고 전기를 시설하여 교통과 산업에 이바지할 것
4. 연탄을 사용하여 산림을 보호, 양성할 것
5. 건답乾畷에는 수차水車를 써서 물을 대도록 할 것
6.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고,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며 육축六畜을 기르도록 할 것
7. 해항세海港稅와 시장세市場稅가 날로 더하고 달로 증가하여 상인들이 부지할 수가 없으니 공평히 처리할 것
8. 우리나라 지폐는 폐단이 심해서 물가는 몹시 높고 화폐는 지극히 천하여 공사의 허다한 재용이 고르지 못한즉 은행을 설치하여 금·은·동전을 다시 통용할 것
9. 노비를 해방시키고 적서積廩를 구분하지 말 것
10. 관직으로 공사를 행하고 실직實職 이외에는 차함措辭하는 일을 일체 없앨 것

2.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박상진은 스승 허위의 권유로 1906년 양정의숙 전문부 법률학과에 입학하였다. 양정의숙 시절은 박상진이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미래의 동지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양정의숙 졸업 후에는 판사 등용 시험에 합격하여 평양의 평안남도재판소에 발령이 났으나 부임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다. 이후에도 상덕태상회의 영업을 가장하여, 여러 차례 만주와 상하이·난징 등지를 여행하면서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략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 신학문을 배우고 동지를 만나다

○ 신학문을 배운 양정의숙

양정의숙은 1905년 2월 엄주익이 근대적 교육 보급을 위해 서울 종로구 도림동(현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몽매함을 깨우쳐 바르게 기른다.’(蒙以養正, 『주역』)를 창학 이념으로 설립되었다. 1907년에는 순헌황귀비에게 황실 재산과 내탕금으로 재정지원을 받았다.

박상진은 스승 허위의 권고에 따라 양정의숙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우고, 미래의 동지인 백산 안희제(1885~1943)와 상덕태상회를 함께 설립한 오혁태, 김덕기를 만났다.



○ 동지들을 규합하다

박상진은 동지 규합에 열중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백야 김좌진(1889~1930)과 신돌석(1878~1908)이 있다. 김좌진은 충남 홍성군의 양반가에서 태어나 노비 해방, 호명학교 설립과 같은 계몽운동에 힘썼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하여 1907년 무렵 박상진을 만났다. 몇 년 뒤 박상진은 광복회 부사령이었던 이진룡(1879~1918)이 붙잡히자 자신의 의형제인 김좌진을 부사령으로 임명하고 6만 원의 군자금 제공을 약속하며 만주로 파견하였다. 평민 의병장 신돌석은 박상진과 의형제처럼 지냈다고 하며, 송정마을에 다녀갔다고 한다.

○ 국제정세를 파악하다

박상진은 외국인 선교사와 주한 외교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고, 국제정세를 파악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국인 선교사 험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이다. 육영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친 험버

1913년 상하이와 난징을 방문하였을 때는, 쑨원(1866~1924)과 장쭈린을 만나 독립운동 지원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박상진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독립운동의 실상을 살펴보고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3.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 지배는 무력과 폭력을 통한 무단통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의병투쟁은 한계에 부딪혔으며, 계몽운동은 식민화에 따라 그 추동력을 거의 잃어버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독립운동으로 비밀결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박상진이 총사령이었던 광복회¹⁾는 1910년의 비밀결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평가된다.

1) 광복회와 선행 조직들



2) 광복회의 결성

광복회는 1915년 7월 15일(음),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되었다. 광복회는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공화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계몽운동 계열과 복벽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의병 계열이 투쟁 방략상 통합을 이룬 단체였다. 이들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령을 세우고, 군대식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광복회 본부는 총사령인 박상진의 집(경북 경주 외동읍 녹동리 469번지)으로, 이곳에서 자주 회합을 가졌다.

1) 광복회는 광복단, 대한광복회, 대한광복단 등으로 불려왔다. 이는 1920년대 광복회 활동을 보도한 신문과 해방 후 재건한 광복회(단)가 남긴 기록에서 온 혼란 때문이다.

○ 광복회의 강령과 실천방법

비밀 · 암살 · 폭동 · 명령	
무력준비	일반 부호의 의연義捐과 일본인의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이로써 무장을 준비
무관양성	남·북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사관으로 채용
군인양성	대한 의병, 해산군인 및 남·북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 채용
무기구입	중국과 러시아露國에 의뢰 구입
기관설치	대한, 만주, 베이징, 상하이 등 요처에 기관을 설치하되 대구에 상덕태라는 상회의 본점을 두고 각지에 지점 및 여관 또는 광무소鑛務所를 두어서 이로써 광복회 군사 행동의 집회, 왕래 등 일체 연락기관으로 함
행형부 行刑部	우리 광복회는 행형부를 조직하여 일본인 고등관과 우리 한인의 반역분자는 수시수처 隨時隨處 포살을 행함
무력전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 완성을 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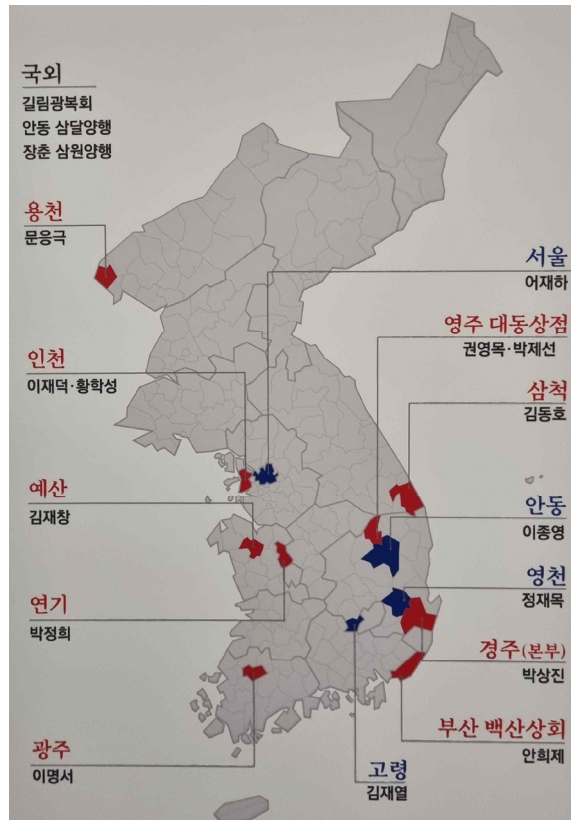
3) 광복회의 조직 체계



4) 광복회의 주요 활동

○ 국내외 독립전쟁 기지 구축

박상진은 광복회 실천 방법 제5조 기관 설치를 강조하며 대구의 상덕 태상회를 거점으로 영주의 대동상점을 비롯하여 곡물상과 잡화상 등 상업조직으로 위장한 연락기관을 설치하였다. 곡물상은 광범위한 교역권과 충분한 거래량을 통해 자금 송달이 편리하고, 가장 기본적인 농업 생산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제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 대동상점을 통해 마련한 이익으로 국외 조직인 ‘길림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이외에 광복회원의 집을 연락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 군자금 모금 활동

광복회 초기의 재원 조달은 회원들의 헌납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사관학교 설립이나 군대 양성과 같은 광복회의 목표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군자금 모집에 나서게 되었다.

▶ 1915년 12월 경주 우편마차사건

1915년 12월 광복회 본부 조직이 나서 경주에서 우편마차를 공격하여 8,700원을 탈취하였다. 이 사건은 일제시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 1916년 9월 대구 권총사건

1916년 9월 권상석, 임세규, 김진우 등이 중심이 되어 김진만의 장인으로 대구 부호였던 서우순에게 자금을 모집하려다가 실패하였다. ‘대구권총사건’으로 붙잡힌 이들은 대구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 김진우 12년, 김진만 정운일 최병규 10년, 최준명 2년, 박상진 김재열 6개월, 홍주일 5개월, 이시영 4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 1916년 10월 운산금광 현금수송마차 공격

운산금광회사가 경의선 맹중리역에서 금괴와 현금을 교환하는 현장을 습격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광복회 부사령 이진룡이 붙잡히자 김좌진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 전국 부호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

광복회는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전국 부호들에게 포고문, 경고, 고시, 지령 등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포고문(布告文)

(상략) 지혜가 있는 자는 서로 충정을 알리고 비밀리에 단결하여서 본회의 의로운 깃발이 동쪽을 가리킬 때를 기다리고 재력있는 자는 각기 의무를 다하여 미리 저축을 하여서 본회의 요구에 응하라. 나라는 회복할 것이오 적은 멸할 것이오 성공은 약속하여 기다릴 것이다. (하략)

광복회 창립 제삼년 정사(1917) 8월 일
광복회

▶ 위폐 제조

중국 지폐를 위조하여 정화(正貨)로 교환하고자 추진하였다. 위폐 제조는 발각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어 위험부담이 컸지만 군자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 의협투쟁

광복회는 군자금 기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일제에 밀고하는 이들을 응징하여, 자산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친일파를 처단하는 의협투쟁을 벌였다.

▶ 장승원 처단

장승원은 한말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당시 평리원장이었던 허위에게 의병자금 20만 원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광복회는 1916년 2차례 처단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나라를 광복하려함은 하늘과 사람의 뜻이
큰 죄를 꾸짖어 우리 동포에게 경계하노라.
(경계하는 이 광복회원)
曰維光復 天人是符 聲此大罪 戒我同胞
(聲戒人 光復會員)

〈1917년 장승원 처단 후, 집과 마을 어귀에 붙인 사형선고문〉

1917년 11월 채기중이 유창

순 임봉주 강필순과 함께 장승원 집으로 가서 그를 처단하고, 현장에 광복회원이라는 격문을 남기고 돌아왔다.

▶ 박용하 처단

박용하는 아산군 도고면의 악질 면장으로, 광복회의 통고문을 받자 이 사실을 일본 헌병에게 밀고하였다. 이에 우재룡으로부터 권총을 전달받은 김한종과 장두환이 김경태와 임봉주(임세규)에게 지시하여 박용하를 처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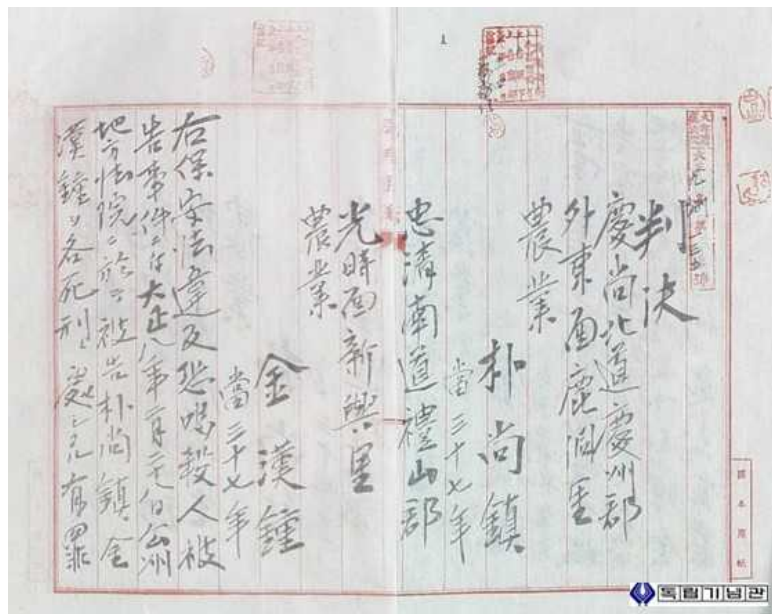
5) 조직의 와해, 이루지 못한 혁명의 꿈

1918년 1월 박용하 처단 사건의 주역인 장두환이 체포되면서 광복회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고, 전국적으로 검거 바람이 몰아쳤다. 이에 박상진은 광복회 회원인 이동흙의 집(안동 하계마을)으로 피신하여 낮에는 토굴에 몸을 숨기며,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만주 망명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주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상진은 1918년 2월 1일 경주 녹동으로 갔다. 그 사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으며, 대기 중이던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다. 박상진은 ‘남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 그 할 도리는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박상진은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간 것이다.

○ 광복회원의 재판

박상진을 비롯한 광복회원은 모두 40명이 예심에 회부되어, 32명이 1심 재판을 받았다. 1919년 2월 1심에서 24명이 사형(5명)에서 징역 6개월까지 형을 받았다. 박상진은 상고 등을 통해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1920년 9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김한종과 함께 사형이 확정되었다.



○ 애끓는 부정(父情)

박상진의 아버지 박시규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 변호사까지 동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진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자 그는 전방위적인 구명활동을 펼쳤다. 사이토 총독이 경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려 하였으며, 일본 총리대신인 하라 다카시(原敬)에게 간청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박시규의 노력으로 조선총독부에 박상진의 감형을 호소하는 장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피나는 노력 끝에 박상진의 감형 문제가 일본 내각 회의에까지 상정되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1921년 8월 4일 사형집행 통지가 내려졌다.

○ 통한의 장소, 대구감옥



대구형무소 잔존 담벼락(가운데 박상진, 이육사 등의 이름이 보인다)

사형 전까지 박상진은 대구감옥(후에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대구감옥에서 독립운동으로 인해 순국한 사람은 총 206명이다. 이들이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몸을 깨끗이 갖고 죽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라고 전해지는 박상진의 옥중편지가 남아 있다.

장두환은 1921년 4월 28일 마포감옥에서 서거했으며, 8월 11일 대구감옥에서 오후 1시 박상진, 1시 30분에 김한종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8월 12일 서대문 감옥에서 채기중, 김경태, 임세규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다행히 우재룡, 권용만, 한훈은 체포되지 않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광복회는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순국 하루 전에 남긴 시

어머님 장례 마치지 못한 채	母葬未成
나라님 원수도 갚지 못했네	君讐未服
빼앗긴 강토마저 되찾이 못했으니	國土未復
이내 몸 무슨 면목으로 저승길 걸어갈까	死何面目

순국 당일 지은 유시 遺詩

다시 태어나기 힘든 이 세상에	難復生此世上
다행히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건만	幸得爲男子身
이룬 일 하나 없이 저 세상 가려하니	無一事成功去
청산이 조롱하고 녹수가 비웃는구나	青山嘲綠水嘆

○ 의인(義人) 세상을 떠나다
박상진의 사형이 집행된 후 그의 시신은 대구에 있는 박시규의 임시 처소로 옮겨졌다. 이틀 후인 8월 13일 오후 4시, 그의 유해는 열차편으로 경주에 도착하였다. 집안이 어려움에 처해 장지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아 그의 장인이 자신의 무덤으로 정했던 곳을 내어주어, 8월 21일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박상진 의사 묘소(경주 내남면 노곡리)

박상진의 장례에는 일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꺼질 듯 통곡하며 의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전한다.

○ 광복회 활동의 의의
광복회는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시기 민족운동 세력을 규합해 독립을 목적으로 무장투쟁을 준비했던 대표적인 비밀결사였다.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로는 유일하게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의협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의열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공백을 메우고 민족역량이 3.1운동으로 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1920년대에는 주비단과 광복단결사대를 조직해 광복회 활동을 계승하였다.

■ 외솔 최현배(崔鉉培, 1894~1970)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는 울산 하상면 동리(중구 동동)에서 최병수와 박순화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일신학교에서 근대교육을 받았는데 산술과목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 뒤 서울의 경성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 재학 중에 조선어 강습원에서 주시경으로부터 한글과 말본을 배웠다.

22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교토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뒤 교육학을 전공하여 수료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최현배는 1926년부터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물러났다가 1941년에 도서관 직원으로 복직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해방될 때까지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는 광복 이후 1954년 연희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문과대학 학장과 부총장을 지내고 1961년에 정년퇴임하였다. 연희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1955년 국어학 연구에 대한 기여와 공로로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퇴임 후에는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로도 추대되었다.

한편 그는 1949년 한글학회 이사장에 취임하여 20년간 한글학회를 이끄는 등 한글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리고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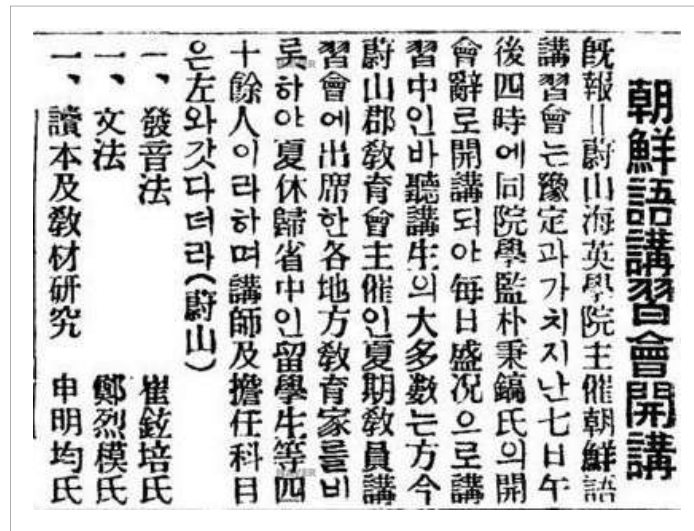
년에는 한글전용촉진회위원장을 맡아 한글전용운동을 펼치기도 했고, 1957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핵심 인물로서 활동했고, 1968년에는 회장을 맡았다. 1970년 3월 23일 최현배가 사망한 이후 후손들과 뜻있는 사람들이 최현배의 한글 연구와 의지를 기리기 위해 외솔회를 만들었고 기관지 『나라사랑』을



일본 유학 시절(오른쪽)

펴내고 있다.

최현배의 삶은 한글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단체활동은 1927년에 한글사 조직부터 1931년 조선어학회의 창립, 광복 이후 한글학회의 운영으로 이어진다.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어학회의 후원으로 1932년에는 조선어 강습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조선어 강습회는 어학회원들이 강사로 나서기도 했는데 최현배는 수원, 청주, 괴산지역 강사로 활동했다.



울산 해영학원 주최 조선어강습회(동아일보, 1926.3.13.)

그는 광복 이후 1945년 9월 ~ 1948년 9월과 1951년 1월 ~ 1954년 1월에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있으면서 국어교과서를 편찬하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한글 가로쓰기 체제를 확립하는 업적을 남겼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중학교 교재로 편찬된 『중등 조선말본』, 주시경의 문법 연구를 계승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우리말본』과 한글 연구에 대한 역사와 이론에 대해 다룬 『한글갈』 등을 들 수 있다.

그가 태어난 동동의 생가터를 중심으로 2010년에 생가와 외솔기념관을 복원·건립했다. 동상은 외솔기념관 외에도 울산 남부도서관과 출신학교인 병영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외솔백일장 및 한글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한편, 최현배의 동생으로 알려진 최현구는 1919년 병영 3.1운동으로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 최현배 생가

병영교회에서 도로를 건너 약 50m 정도 걸어가면 복원된 최현배 생가(울산시 기념물 제 39호) 및 기념관을 볼 수 있다. 이곳은 국어학자였던 최현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생가는 원래 초가 건물이었는데 1967년에 철거되어 집터와 축대 일부만 남아 있었다. 터만 남은 빈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채소밭으로 이용하다가 학계와 울산시의 노력 끝에 복원하게 되었다. 생가는 ㄷ자형으로 남쪽이 트인 3동의 초가로 복원되었다. 사립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3칸의 살림집이 자리하고 창고, 부속채, 아래채가 있다. 생가를 둘러싼 담장은 초가 흙담으로 돼 있으며 뒤편에는 대숲을 조성했다.



옛 생가 모습

○ 외솔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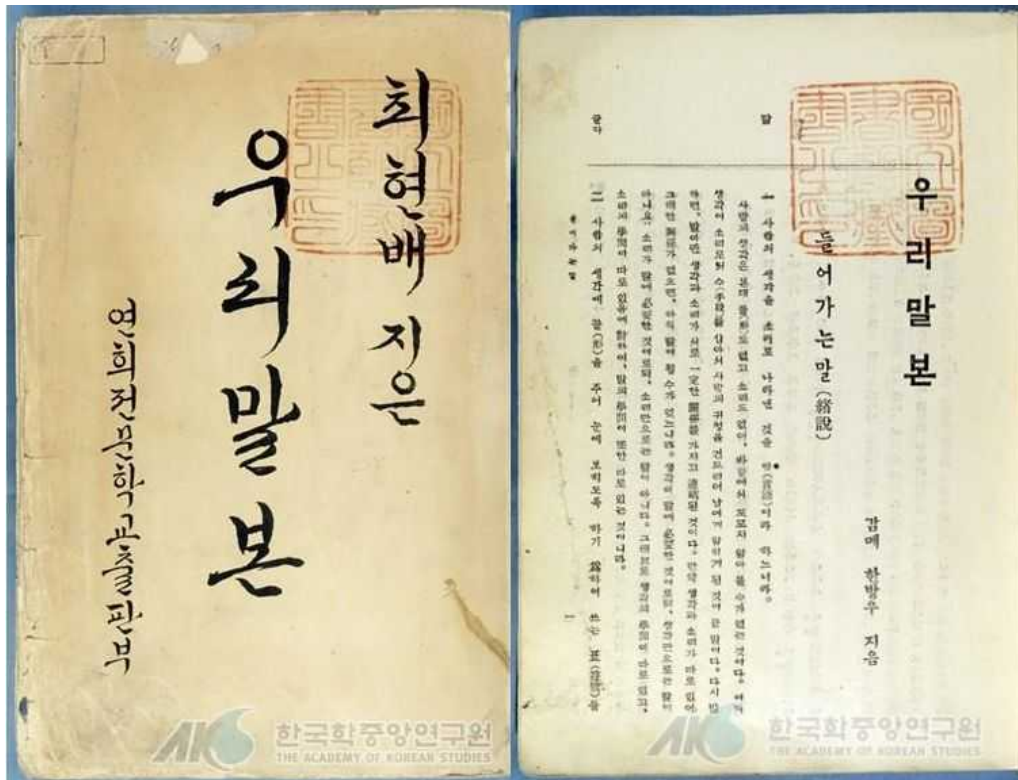
생가 건물 아래로 내려오면 외솔기념관이 있다.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 사업은 2001년 말 울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최현배 생가터를 울산시기념물 39호로 지정한 이후 2002년 10월 생가복원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리고 최현배 관련 자료를 기탁 받았고, 2008년 3월 착공했다. 2010년 개관한 이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에 전시관, 체험실, 한글교실,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현배 선생의 저서와 한글 관련 서적 1만여 점, 타자기 초상화 등 유품 30여 점 등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 입구에는 2011년에 세운 최현배 동상이 있다. 2012년부터 한글문화예술제와 다양한 체험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 한글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 ‘조선어학회’ 사건과 우리말 지키기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일제는 이듬해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일본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평상시에도 일본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등 이른바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일본 유학 중 교육학을 접하면서 민족 계몽의 필요를 깨달은 선생은 1920년에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 교원으로 부임하여 우리말을 가르치며 연구하였고, 국어의 문법 체계를 세울 목적으로 『우리말본』의

저술을 계속해 나갔다. 또한, 같은 해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의 회원이 되어 '한글'지를 창간하고, '한글날' 제정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1929년 조선어 사전편찬회의 준비위원 및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33년까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진력하였고, 1937년 『우리말본』을 출판하는 등 민족 언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 『우리말본』(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통치를 받는 동안 우리의 국어는 일본어요, 우리말은 국어가 아닌 조선어일 뿐이었다. 공식 언어로서 일본어의 사용이 강요되었고, 모든 교육이 일본어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모국어를 잃음으로써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민족적 유대가 끊어질 뻔하였다. 해방이 되어 우리말이 국어로서의 지위를 되찾고, 각급 학교의 교육이 국어로 이루어지게는 되었으나 국어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한글맞춤법통일안'과 '표준어사정안'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며 국민의 태반이 한글조차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국어를 정비하고 우리말로 교과서를 편찬하여 국어를 교육의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시급히 필요했던 국어 교사들을 길러내어 국어 교육이 정상화하도록 하는 등의 일을 하는 한편, '한글만 쓰기'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데 크게 기여한 이가 외솔 최현배이

다. 언어는 국가 성립의 기본 요건이다. 원활한 언어 소통, 바르고 정확한 언어 표현력이 없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다.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이로 우리는 외솔 최현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의 한 인물로 존경받는 국어학자이며 동시에 국어교육자, 국어운동가였던 그를 꼽는 까닭이 바로 이에 있다.

일제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본래 같은 종족이라는 논리로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전시 체제의 동조를 유도하는 내선일체론을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언어의 말살과 창씨개명 등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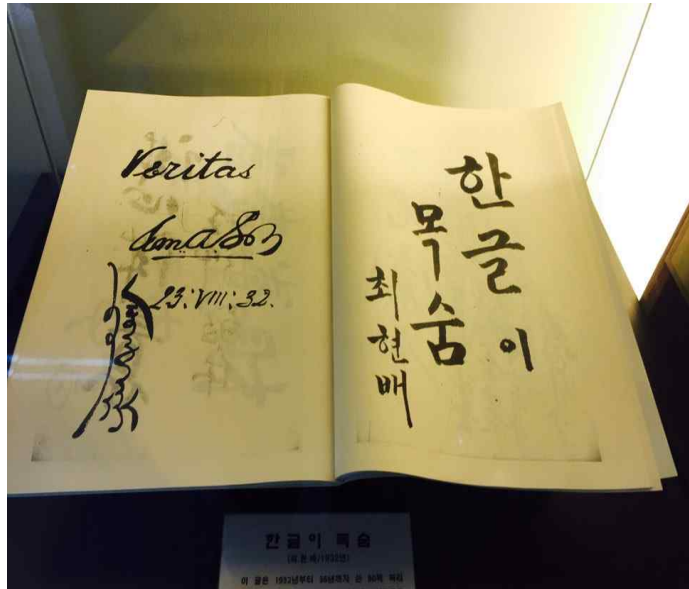
▲ 1949년 6월 12일에 찍은 조선어학회사건 수난자동지회 기념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최현배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조선어 및 조선사 수업이 의무 교육에서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조선어 과목은 버려진 상태였으며(결국 1943년 완전히 폐지된다) 이 시기 일본어 교육 및 사용을 의무화하라는 훈령을 각급 학교에 지시한 상태였다. 한편 지식인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어, 1941년에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발령된 상태였다.

이즈음 함경남도 함흥에서 함흥 영생고등학교 소속의 여학생이 기차 안에서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대화를 하자 이를 눈치 챈 친일계 조선인 경찰관 '야스다(한국명:안정목)'가 즉시 체포하였다. 이 여학생은 경찰의 취조와 고문 끝에 조선어학회 소속 한글학자이자 서울에서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는

정태진이 그녀에게 민족정신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받게 되었다는 진술하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이러한 사업이 민족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탄압에 들어간다.

조선어학회 학자들은 자신들은 우리말 연구와 사전편찬에 신경을 쓴 것 외에는 독립운동을 조장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지만 일제는 1943년 4월까지 총 33인의 한글학자들을 체포하였다. 그 결과 학자 대부분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취조를 받았거나 모진 고문 등을 당한 끝에 이 중 16인은 치안유지법에 근거하여 '내란죄'를 죄명 삼아 함흥형무소로 수감시켰고 12명은 기소유예 처리를 받았다. 그 중 한글학자였던 이윤재, 한징은 형무소 수감 중 옥사하였으며 1945년 해방이 되어서야 남은 학자들은 모두 석방이 되었다.



조선어학회의 중심에 있었던 최현배는 일제강점기에 두 번의 옥고를 치른다. 그만큼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은 것이다. 연희전문학교 교수직에서 강제 퇴직당한 중에도 선생은 한글을 역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연구한 『한글갈』을 짓기 시작하여 1942년 출판하는 등 활동을 계속했다. 같은 해 10월 다시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검거됐다. 한글을 목숨으로 지킨 이들이 있어 일제가 그토록 말살하려 했던 한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어학회의 중심에 있었던 최현배는 일제강점기에 두 번의 옥고를 치른다. 그만큼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은 것이다. 연희전문학교 교수직에서 강제 퇴직당한 중에도 선생은 한글을 역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연구한 『한글갈』을 짓기 시작하여 1942년 출판하는 등 활동을 계속했다. 같은 해 10월 다시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검거됐다. 한글을 목숨으로 지킨 이들이 있어 일제가 그토록 말살하려 했던 한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1942년 10월 1일 새벽에 일제의 경찰에게 잡히어 두 팔목에 쇠사슬을 차고 함경도 흥원까지 가서 일 년을 두고 갖은 천대와 모욕과 악형을 받으면서 지나던 일, 그리고 일 년 뒤에 함흥감옥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이 년이란 세월을 보내던 일 모든 것이 나의 숨질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그 중에도 우리가 경애하여 마지않는 동지 이윤재, 한징 두 분을 옥중에서 잃은 일은 생각할수록 통분하기 그지없다.

우리말, 우리글을 연구, 정리, 보급, 보존에 힘쓰다 해서 우리 동지들도 모두 한 가지로 철장에서 달초와 병고를 겪었다...우리말, 우리글을 사랑한다 해서 우리말 사전을 꾸민다 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잃은 형벌을 당했더니 이제는 그것이 공

이라 해서 명예스런 상을 타게 되었다. 이것은 웬 까닭일까? 오로지 우리에게 「나라」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가 상 탔다는 것보다도 우리도 이러한 상을 태울 만한 체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여 마지아니한다. 이 세상 현실에서는 「나라」가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된다…"

- 경향신문 1955년 7월 28일

○ 깨어있는 지식인으로 정치·사회운동에 나서다

최현배는 한글학자와 교육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정치에 뜻을 품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1950년의 선거에 참여했으니 그 시절을 직접 겪은 이들이 연로해진 것도 있지만, 울산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아서다. 또 최현배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더 모를 수 있으나 결과는 2위 득표라는 제법 놀라운 기록이었다.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겪고 교육자로 이름을 얻었지만 당시 선거는 비용 제한이 없는 때라 금권도 당락을 좌우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기간에 희생된 민간인희생자(원사자)들이 발굴된 1960년 울산보도연맹 희생자합동묘의 추모비의 글을 직접 적기도 했다.



1960년 10월 1일, 함월산 백양사 옆 합동묘와 비석 앞에서 울산유족회 건부 33명이 합동제사를 마친 후 함께 찍은 사진

"6.25 사변 당시 원사자 합동묘비"

여기 죄 없이 학살당한 700여 명 혼백이 영원한 잠에 들어 있다. 6.25사변 당시 이분 네들이 하루 아침에 경찰에 불리어 나간 뒤로 종적이 일향 모연하여 부모형제 자매 부처자녀 친척을 잃은 유족들은 구곡간장에 맺힌 원한을 풀길이 바이없어 십 년의 세월을 보내었더니 금년 사월혁명으로 무폐무법의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짐을 보고 그 유족 일동이 기를 쓰고 다투어서 드디어 대운산 및 반정골짜에서 그 무참하게도 구덩이 죽임을 당한 곳을 찾아내었다. 수천의 유족들은 다시금 새로와 진통의 정을 품 안고 누루 퇴적한 백골들을 파내어 담아 여기에 합동장을 지내고 이 비를 세워 그 연유를 적고 그 명복을 비는 바이다.

- 단기 4293년, 6.25 당시 울산군 원사자유족회, 글 지은이 최현배

■ 학파 이예(鶴坡 李藝, 1373~1445)

본관은 학성(鶴城), 아호는 학파(鶴坡),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고려 말기인 공민왕 22년(1373) 울산에서 태어났으며 조선 초기인 세종 27년(1445) 2월에 73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조선 초기 대일 외교 현장에서 한일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한 독보적 인물이며, 중인 계급인 아전에서 출발하여 종2품인 동지중추원사의 벼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조선 초기인 태조 5년(1396) 12월, 3천 명의 일본 왜구들이 울산에 침입하여 군수를 사로잡아 돌아갔다. 울산의 여러 관리들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다. 그러나 이예는 왜구의 배를 바다 가운데까지 뒤쫓아 가서 군수와 같은 배에 타기를 청하였다. 왜구는 그 정성에 감동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대마도에 이르러서 왜구는 군수 일행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그런데 이예가 군수에게 여전히 아전의 예절을 지키기를 더욱 깎듯이 하는 것을 보고는 이에 감동하여 마음을 바꾸었다. 이들은 죽음을 면하고 대마도의 화전포에 유치되었다. 나라에서 통신사 박인귀를 보내어 화해하게 되어, 이듬해 1397년 2월 이예는 군수와 함께 돌아왔다. 나라에서 이예의 충절을 가상히 여기어 아전의 역할을 면제시키고 벼슬을 주었다.

어린 시절인 8세 때에 왜구가 울산을 침략하여 어머니를 사로잡아 갔었다. 이예는 28세가 되던 해(1400) 어머니를 찾기 위해 조정에 청해 회례사 윤명의 수행원으로 대마도에 갔었다. 그리고 집집마다 수색하여 어머니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태종 1년(1401)에 보빙사로 이끼섬에 파견되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공식 사행(使行)이었다. 일본에 마지막으로 파견된 것은 71세인 세종 25년(1443)으로 체찰사로 대마도에 파견되었다.

『조선왕조실록』 등 자료를 살펴보면 이예는 1401년에서 1443년까지 43년간 40여 차례 일본(대마도, 일기도, 유구 포함)에 정사 혹은 부사로 파견되었다. 그 중 『조선왕조실록』에 사행의 활동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만 13회에 달한다. 일본국왕에 6회, 대마도, 일기도, 유구국에 7회로 이예가 이 기간 동안 쇄환해 온 조선인 포로가 모두 66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예는 조선 초기 대일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었다. 특히 조선 전·후기에 걸쳐 일본 국왕에게 파견된 사행은 모두 30회였는데, 이 중 6회의 사행에 참여하여 가장 파견 빈도가 높다. 또한 통신사란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사행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대마도, 일기도, 유구국에 파견된 사신이 40회(대마도33+일기도4+유구국3)였는데 이예는 이 중 7회의 사행에 참여하여 역시 가장 파견 빈도가 높았다.



통신사 이예 공적비(일본 대마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예의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아래와 같이 남아 있다. 세종 8년에 일본으로 떠나는 이예에게 세종이 갖과 신을 하사하며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이 나온다.

“(일본을) 모르는 사람은 보낼 수 없어서, 이예 그대를 명하여 보내는 것이니, 귀찮다 생각하지 말라.”

또 조선을 방문하는 대마도인의 체류기한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종이 하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모두 말하기를 ‘예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숙의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이예는 71세의 노구로 대마도 체찰사를 자청하며 세종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섬에 출입하여 이 섬의 사람과 사정을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신이 가면 저 섬의 사람들이 기꺼이 만나볼 것이며,

누가 감히 사실을 숨기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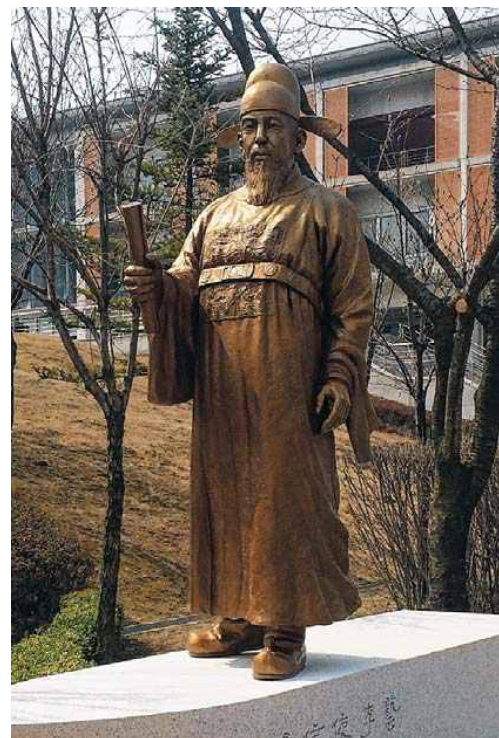
위의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이예의 모습을 보면 그가 조선 초기 대일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조정의 중신들조차 이예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이예 스스로도 대일 외교에 매우 자신감이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요즘의 시각으로 정리하면 이예는 전문 외교관이었다.

이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근대 이전 한일 관계에서 민간의 국제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왕이 파견하는 공식 사행은 일차적으로 정치,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문화의 국제교류에 있어 거의 유일한 창구였다. 이예와 관련된 문화 교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장경 및 불경의 사급(賜給)을 통한 불교문화와 인쇄문화의 전파, 일본식 자전 물레방아의 도입, 화폐의 광범위한 사용, 사탕수수의 재배와 보급에 대한 건의가 눈에 띈다. 사행은 또한 민간에 의한 광물채취 자유화와 이예 대한 과세, 화통 및 완구의 재료를 동철에서 무쇠로 변경, 외국 조선 기술의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 조선 초기 대일관계사와 전문 외교관 이예

한국사에서 여말선초 시기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1368년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였고 1391년 복원이 멸망하였다. 다음 해인 1392년 조선이 건국하였고, 동시에 일본에서는 장기간 내란상태였던 남북조시대(1336~1392)가 끝나고 통일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 모두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때 조선과 명과는 여진 문제로,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현안은 왜구 문제였다. 물론 조·명·일의 세 나라 신정권의 공통적인 외교 과제는 왜구 문제였다.

조선 초기 대일 관계에서 가장 큰 목표는 결국 왜구의 위협을 제거해나가고 평



이예 동상(서울 국립외교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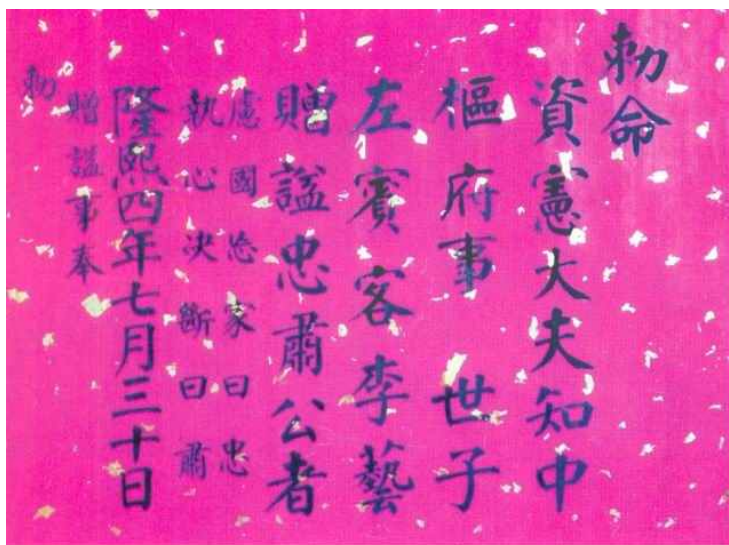
화적인 통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일본 간에 많은 사신들이 왕래하면서 교섭을 펼쳤고 이를 통해 교린 체제가 구축되어 간 것이 조선 초기 대일 관계사라고 하겠다. 그러나 교린 체제가 쉽게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 회유와 강경책-쓰시마 토벌, 3포 개항, 계해약조-이 번갈아 가며 펼쳐졌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 초기 대일 관계사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많은 예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예이다. 특히 태조 대에서 세종 대에 걸쳐 활동한 이예는 직업적 전문 외교관으로 불릴 정도로 이 시기 대일교섭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초기 대일 관계를 특징짓는 핵심 주제어인 교린 정책, 왜구, 쓰시마 토벌, 3포 개항, 계해약조라는 역사적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이예이다. 이는 이예라는 인물을 통해 조선 초기 대일 관계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린 정책이란 결국 대일 사절에 참여한 사신들에 의해 일본 현지에서 구체화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통신사를 비롯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활동한 이예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8살 때인 고려 우왕 6년(1380)에 어머니가 왜구에게 붙잡혀 감으로써 왜구 문제는 이예에게 단순히 관인으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그가 왜구에게 붙잡혀간 조선인을 구해온 총수는 667명에 달한다고 한다. 가깝게는 대마도에서부터 일본 본토 그리고 유구까지 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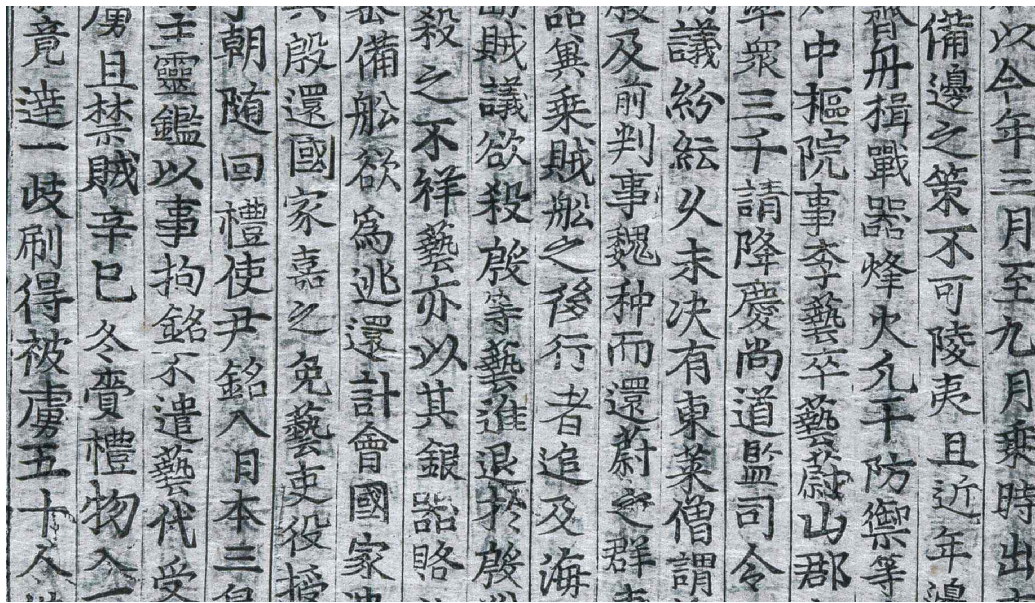
이예는 또한 쓰시마 토벌 시 중군병마부수로서 활약하였는데 이는 외교 사절로 대마도·유구·일본 등지에 다녀와 해로에 익숙하고 또 대마도의 사정과 지

리, 풍습 등을 상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마도 정벌 직후 포상 규정에 따라 이예는 1등으로 포상되어 자손에 이르기까지 면역하라는 공패(功牌)를 사급받았다. 3포 개항은 부산포와 내이포(제포)와 염포를 왜인들에게 무역을 허가하며 포구를 열어준 것이다. 그런데 이 3포 개항은



1910년 시호 칙명

전부 이예가 대일 관계 사절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특히 울산의 염포 개항(1426)은 이예의 출신 지역으로서 개항 자체가 이예의 활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종 25년(1443)에 맺은 계해약조는 이후 대일 관계에서 모든 통교자들에게 적용되어 대일 통교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기존에는 이 약조를 통신사 변효문 일행이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대마도에 체찰사로 파견되었던 이예가 주도하여 체결한 것이었다.



이예의 졸기(卒記)-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3일 정묘 2번째 기사

이러한 연유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예를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그가 죽은 지 570여 년이 지났지만 그 흔적은 지금도 울산에 남아 있다.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는 그의 유허비가 있고, 남구 달동 문화공원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울산 동헌은 그가 ‘기관’으로 근무하던 현장이다. 앞으로 복원될 예정인 울산 객사는 그가 일본에 파견될 때마다 들렀거나 대궐을 향해 망궐례를 했던 곳이다. 울산의 남북을 잇는 동맥으로 현재 부분 개통된 ‘이예로’는 그가 한양에서 일본을 향해 가던 통신사 옛 길의 우회도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하드웨어는 오늘의 울산이 그를 기억하게 도와주는 귀한 유산이다.

< 충숙공 이예의 약력 >

연령	연 대	주 요 행 적	관 직
1세	1373(공민왕22)	울산군에서 출생	
24세	1396(태조5)	2월 울산군의 기관, 울산군수 이은을 좇아 대마도로 자진하여 잡혀감	
25세	1397(태조6)	월 이은과 함께 귀환하여 관직 받음	
28세	1400(태종즉위)	회례사 윤명을 수행 일기로 파견, 대마도에 억류된 윤명을 대신하여 일기도에 가서 외교업무 수행	
29세	1401(태종1)	회례사로 일기도에 파견, 포로 50명 쇄환	좌군부사직(종5품)
34세	1406(태종6)	회례관으로 일본에 파견, 포로 70여명 쇄환	
36세	1408(태종8)	통신부사로 일본에 파견, 조난 후 귀국	
38세	1410(태종10)	대마도 파견, 도주에게 국서, 예물 전달	호군(정4품)
		1401년-1410년 사이 포로 500여명 찾아옴	
44세	1416(태종16)	통신관으로 유구국 파견, 포로 44명 쇄환	
46세	1418(세종즉위)	경차관으로 대마도에 파견	
47세	1419(세종1)	대마도 정벌 시 중군병마부수로 참여	
50세	1422(세종4)	회례부사로 일본국왕에게 파견 일본국왕에게 대장경 사급	
52세	1424(세종6)	회례부사로 일본국왕에게 파견 일본국왕에게 대장경 사급	대호군(종3품)
56세	1428(세종10)	통신부사로 일본국왕에게 파견	
60세	1432(세종14)	회례사로 일본국왕에게 파견 일본국왕에게 대장경 사급 귀로에 해적만나 천신만고 끝에 생환	상호군(정3품하)
66세	1438(세종20)	대마도에 파견	첨지중추원사 (정3품상)
71세	1443(세종25)	대마도 체찰사로 파견, 포로 7명 쇄환, 왜적 15명 생포, 계해조약 체결 주도	동지중추원사 (종2품)
73세	1445(세종27)	2월 별세	
	1910(융희4)	시호:충숙공-자헌대부지중추부사 세자좌빈객	(정2품)

○ 석계서원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 시대에 건축된 서원으로 충숙공 이예를 봉향하고, 학자였던 반계 이양오(1737~1811) 선생이 후진 양성에 힘썼던 곳이다. 석계서원은 1737년 현 남구 신정동에 창건했던 구 용연사를 1782년 웅촌면 석천리로 옮겨 지은 건물로, 1860년 사액서원으로 승격된 후 제사 기능과 강학 기능을 해오다 1871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됐다. 서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옛터에 단을 세우고 해마다 음력 9월 9일 향사를 지내오다가 2004년 4월에 복원하였다.

서원 내에 현존하는 건물로는 강당에 해당하는 경수당(敬守堂)과 출입문에 해당하는 필동문(必東門)이 있고, 서원에 딸린 정자로서 재천정(在川亭)이 있으며, 사당과 내삼문, 동재 등을 중건했다. 경수당 뒤쪽에 사당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배치 형태는 강당 뒤쪽에 사당이 위치하는 전학후묘형이었을 것이다.

건축적 특징을 보면 경수당은 뒷마루에 덧붙인 쪽마루 형태의 진입부가 특이하고 장초석(長礎石) 등의 세부 수법이 주목할 만하다. 재천정은 후면부에서 진입하는 방식으로, 경주 안강의 옥산서원 곁에 있는 독락당의 계정(溪亭)과 유사하다.



○ 울산 학성이씨근재공고택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로 이 집은 1765년(영조 41) 이예의 11대손인 근재공 이의창이 세운 학성이씨 지파(支派) 종가이다. 고종 때 한 차례 고치고, 1934년에 대대적으로 고쳐 지었다. 온양 남창 3.1만세운동을 주도한 이재락(李在洛)도 이 집에서 살았다.



가옥의 배치에서 행랑채, 사랑채, 안채의 구분이 뚜렷하고, 따로 사당을 갖추고 있어 조선 후기 사대부 종가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채의 정침에서 대문 쪽으로 조산(祖山)인 벽락띠산이 보이도록 가옥을 두어 풍수설을 따랐다. 즉 마을 전체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산과 안산, 고택 바로 앞에 자리

한 조산(비보림), 마을을 지나는 회야강 등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고택은 산으로 주변이 둘러싸여 바람이 온화하게 불어서 형성되는 "장풍국"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모양이라고 한다.



건축 양식을 보면 사랑채는 뒷마루가 있는 3칸 홀집의 평면 가옥이다. 안채는 보를 다섯 줄로 엮어 넓이가 두 칸 되게 한 오량 가구 위에 팔작지붕을 엮은 정면 6칸의 비교적 큰 건물로, 기동도 개인 집에서는 쓰지 않던 등근 모양이다. 보통 사대부집 안채와 달리 넓은 뒷마당이 있다.

○ 이재락(1886~1960)

울산 응촌면 석천리 출신으로 이석륜의 외아들로 태어난 선생은 경성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고종 인산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3.1운동에 참가한 후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향하였다. 인근 온양면의 이수일과 상의하여 이 지역 3.1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문중의 노소와 지역민들에게 서울 거사 소식을 전하면서 동지 규합에 나서 1919년 4월 8일 남창 3.1만세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25년 8월 심산 김창숙이 중국으로부터 비밀리에 입국하여 내몽고 지방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할 자금으로 20만 원 모금을 목표로 활동할 때 선생은 소유 재산을 팔아 군자금 1천 원을 헌납하였다. 그러나 20만 원 군자금 모금 계획이 목표에 미달하자, 1926년 3월 17일 부산 범어사에서 손후익, 정수기 등과 함께 밀의를 거둬서 제2차 계획으로서 소액 기부한 부호들에게 거액 기부를 요구키로 결정하고 모금 활동을 벌이다 1926년 3월에 일경에 발각되어 체포되

었다.

이로 인해 1927년 3월 29일 제령 제7호 위반 및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민립대학 설립 발기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982년 대통령 표창을 받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 난계 오영수(蘭溪 吳永壽, 1909~1979)

○ 유년시절과 성장기

오영수는 아호가 월주(月州), 호가 난계이다. 1909년²⁾ 울주군 언양읍 동부동 313번지에서 해주 오씨 오시영(吳時泳)과 손필옥(孫必玉)의 4남 3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조부와 부친은 모두 향리의 유생으로 작천정³⁾을 오가며 한시와 풍류만을 일삼아 집안의 형편은 늘 가난을 면치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10세가 넘도록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뒤늦게 언양보통학교에 입학하여(1920. 4. 1) 17세가 되던 1926년 졸업(언양초등 11회)하였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집안이 어려웠던 그는 김기오(『현대문학』 초대 이사장,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장)가 운영하는 신문 지국에서 배달, 우송, 수금 업무를 맡아 일했다. 한 달에 50전을 받아 15전은 월사금으로, 나머지는 집안 살림에 보탬이라고 한다. 졸업 직후에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우체국의 견습공으로 취직해 잠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나고 신학문에 대한 꿈과 열정이 강하였던 오영수는 193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오사카의 나니와(良速) 중학교 속성과를 수료하였다. 이어 1935년 일본대학 전문부에 적을 두었으나, 각기병으로 일시 귀국했다가⁴⁾, 1937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39년 동경 국민예술원(國民藝術院)을 졸업하였다.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잠시 청년회관을 열어 마을 젊은이들에게 국어, 역사 등의 신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이때 일제로부터 불령선인으로 낙인 찍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만주로 피신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무렵 부산 동래의 일신여학교 출신이며 일곱 살 연하였던 김정선(金貞善)을 만나 결혼하였다. 김정선은 당시 언양보통학교의 교사였다. 1938년에 장녀 속희(현재 화가, 수필가)가 태어났다.

2) 오영수의 출생일이 1914년(혹은 1911년) 2월 11일로 알려졌으나, 이호종이 『난계 오영수론』에서 호적부에 '명치 42년(1909) 2월 11일'이라 되어 있음을 밝혔다.

3) 작천정에 조부 오병선(吳炳善)의 '작천정기(酌川亭記)' 편액이 걸려 있다.

4) 이 시기《조선일보》《동아일보》 등에 동시(童詩)를 발표하였다.

○ 문학활동을 시작하다

1943년 만주에서 귀국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고향의 빚을 청산하고 아내를 따라 부산의 화전국민학교(현 부산시 기장군 일광초등학교)가 있는 조그만 어촌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때의 생활은 후에 오영수의 대표 작품인 『갯마을』의 배경이 되었다. 아울러 이곳에서 인근 부산에 와 있던 김동리의 형 범부⁵⁾를 만나 김동리와 인연을 맺으면서 문학인생의 결정적인 계기를 맞기도 하였다. 1946년 아들 윤(潤)⁶⁾이 태어나고, 1948년에 다시 아들 건⁷⁾이 태어났다.



광복 후 오영수는 경남여고에서 국어와 미술을 가르치면서 1949년 단편소설 『남이와 옛장수 - 고무신으로 改題』로 『서울신문』의 신춘문예에 입선하였다. 또 이듬해에는 단편 「머루」가 『서울신문』의 신춘문예에 다시 당선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나자, 청마 유치환 등과 함께 동부전선(제3사단 22연대) 종군작가로 나서기도 하였으며, 1951년 부산중학교로 전근하였다.

○ 고단했던 서울 생활

1954년 평론가 조연현과 함께 문예지 『현대문학』 창간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머물렀다. 1955년부터 조연현이 주간(실무책임자)을, 오영수가 편집장을 맡

5) 김범부(金凡父):(1897~1966): 본명 鼎高. 동양철학자·한학자. 김동리의 형. 1915년 백산상회(白山商會)의 장학생으로 일본 도쿄[東洋]대학에서 동양철학을 전공. 도쿄 외국어학교에서 영어와 독일어를 수학. 1941년 다솔사에서 해인사사건으로 검거되어 1년 동안 옥고. 광복 후 부산에서 一五俱樂部를 조직. 1948년에는 서울에서 경세학회(經世學會)를 조직. 첫 저서인 《花郎外史》를 시작으로 여러 책을 저술함. 1950년의 제2대 국회의원선거 때 동래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55년에는 계림대학장(鷄林大學長)이 되었으며, 1958년에는 건국대학교에 동방사상연구소를 설립하여 역학과 오행사상을 3년 동안 강의함.

6) 오윤(1946~1986) : 판화가. 서울대 조소과 졸. 《현실과 발언》창립 동인. 선화예고, 동성중 교사.

7) 오건(1948~1992): 동국대 농대 졸. 부산에서 출생하여 서울에서 자랐다. 전북 부안에서 농사지으며 농촌을 살려보고자 온몸을 던진 인물이다. 1974년에 결혼 후 부안에 내려와 변산면 도청리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1992년 1월 21일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죽을 때까지 땅을 일구어 농사지었다. 대학 재학 때는 '농촌문제연구소'와 4H에서 활동하다가. 197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 강연의 영향으로 부안의 농민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1984년부터는 김제의 '기독교농촌개발원'에서 농민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오건은 농민운동과 정농운동을 결합하고자 노력하였다.

아 1966년까지 일했다. 1955년 단편소설 「박학도」로 제1회 한국문학가협회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의 서울 생활은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속, 낙향산고」에 당시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서울서 삼십 년, 옆눈 한번 팔지 못하였다. 자신을 위해 택시를 타지 않았고, 양담배 한 갑 산 적이 없었다. 친구들과 점심 한 끼를 몇몇이 사보지 못하였다. 주간은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땀 직장으로 가버리면 종일 사무실을 지켜야 했다. 실례지만 문단 거지들과 지방 문인들의 시종까지 그 알량한 월급으로 감당을 못해 원고료를 찌끔 협잡을 해서 문인 거지들과 지방 문인들의 찻값에 보태기 위해 아무도 몰래 서랍에 넣어두고, 반품을 표지만 뜯어버리고 휴지로 팔아 충당하기도 하였다.”

1957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 250번지로 이사하였으며, 1959년 단편소설 『메아리』로 아세아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1968년 한국문학가협회 소설분과위원장, 1970년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위원장에 피선됐다. 하지만 바쁜 생활 가운데 건강이 악화되어 1966년 지병인 위궤양으로 현대문학사의 실무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듬해에는 수술도 받았다. 이때 사경을 헤매다가 회생하면서 아호 '월주'를 '난계'로 바꾸었다.

○ 침죽재에 내려오다

1977년 3월 15일 그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로 낙향했다. 대숲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시골집 하나를 구해서 구들을 고치고, 도배를 하고, 대를 쪼개어 사립문을 얹어 달았다. 그리고 그 집을 침죽재(枕竹齋)로 명명했다.



침죽재에서 오영수는 부산과 울산의 제자, 문인들과 함께 어울렸다. 윤정규, 최해균, 구본룡, 윤진상, 정종수 등 부산의 문인과 김영진, 이재기, 서상연, 김성춘, 신필주 등 울산의 문인들이 침죽재를 자주 찾았다. 또 낚시와 난을 특히 좋아하였는데, 집 앞의 회야강 주변 바위나 풀숲에 터를 잡고 앉아서 수시로 낚시대를 드리우곤 했다. 또 대숲에 비가 내리는 밤이면 만돌린을 켜면서 대중가요 <고향초>와 <울릉도 뱃사공>을 애수 어린 목소리로 노래하였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한다.

한편 1979년 『문학사상』 1월호에 「특질고」란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우리나라 각 지방의 사라져 가는 지방의 특성과 사투리를 살려보자는 의도로 쓴 글이었다. 그런데 이 글이 전라도 지역 사람들을 모독했다는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잡지사에서는 곧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학사상』의 3월호와 4월호를 자진 휴간하고 일간지에 사과문도 게재하였다. 하지만 이 사과문의 문구에 오영수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제명되는 등 뜻하지 않은 곤욕을 연이어 치르게 되었다. 결국 『문학사상』 2월호에 마지막 작품인 ‘편지’를 발표한 후 절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 충격으로 지병인 위궤양이 다시 악화되어 1979년 5월 15일 눈을 감았다. 향년 71세.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선산에 묻혔다.

○ 오영수를 기리다



오영수 문학비(구 언양초등학교 교정)

1983년 5월 15일 울산문인협회와 부산소설가협회는 공동으로 오영수의 무덤가에 ‘작가 오영수 여기 잠들다’(오윤의 글)라고 작은 묘비를 세웠다. 1992년 10월 30일 오영수 문학비 건립위원회는 울산 남구문화원 뜰에 오영수 문학비를 건립했다. 그리고 1993년 5월 15일 일간지 『울산매일』이 오영수의 문학정신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오영수문학상>을 제정하고, 매년 전국의 작가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을 해오고 있다. 또 1996년 ‘문학의 해’를 맞아 언양초등학교 총동창회는 교정에 동문 소설가를 기리는 오영수문학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 오영수의 문학세계

전형적인 단편 작가로 한국적인 소박한 인 정이나 서정의 세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작품들을 창작했다. 작중 인물들은 온정과 선 의의 인간들이며, 도시보다는 향촌을, 기계문 명보다는 자연을, 현대적 세련미보다는 고유 한 소박성을 각각 그리워하며 예찬하는 경향 을 보였다. 반면 역사나 사회에 대한 작가적 책무의 문제가 취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인간의 원초성에 대한 긍정, 향토 성의 옹호, 반문명적·반도시적 성격은 1950 년대 이후 급격히 성행한 외래문화 수용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갯마을 영화 포스터

○ 오영수 문학관



오영수 문학관

오영수 문학관은 언양읍 송대리 산45의 8번지 일원(구 언양정수장 자리), 난 계 오영수가 잠들어 있는 화장산 기슭 입구에 있다. 난계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1월 21일에 건립된 이곳은 연면적 538㎡에 지상 2층 1개

동 규모로 되어있다. 내부에는 2층의 전시실과 ‘문화사랑방’이라 불리는 작은 도서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난계홀(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에는 오영수의 육필원고와 미술작품 등 188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쉬는 날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연휴이다.

○ 오영수 묘



오영수 묘(오윤의 글)

언양 읍성 북쪽에 있는 언양 동부주공아파트를 돌아 뒤로 가면 송대리 내곡 마을로 가는 내곡길이 나온다. 내곡 마을회관에서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15분 정도 오르면 송대리 산25번지의 오영수 묘에 이른다. 묘 입구 표지판에는 문학가 오영수의 묘라고 되어 있다. 3기의 묘 가운데 있는 것이 오영수의 묘이다. 묘 옆에는 1983년 울산문인협회와 부산소설가협회가 공동으로 세운 ‘작가 오영수 여기 잠들다’라는 비가 있다. 이 비문은 1980년대 민중판화가로 유명했으나 요절한 그의 아들 오윤이 쓴 것이다. 뒷면에는 간략한 오영수의 연보가 새겨져 있다.

○ 오윤(1946~1986)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의 중심 작가로 활동하며 우리 전통 민중문화를 민족예술로 승화시킨 판화가 오윤. 소설 『갯마을』 작가 오영수의 아들로 태어나 한국적 정서가 담긴 강렬한 목판화 작업을 선보였던 그는 마흔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이후 민중미술의 상징적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오윤의 작품 세계를 짚어보는 전시가 2012년 9월 19일부터 종로구 견지동 아라아트(ARAART) 갤러리 개관 기념전으로 열렸다. 전시는 오윤에게서 ‘민중미술가’라는 수식어를 잠시 떼어내고 작업 전반에 나타난 춤에 대한 그의 관심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명도 ‘춤추는 도깨비, 오윤’이다.



오윤은 동래학춤으로 이름을 떨쳤던 외조부 김기조와 이를 이어받은 외삼촌 김희영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초기 드로잉도 춤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호랑이, 도깨비, 원귀 등도 춤을 춘다. 칼춤, 탈춤, 북춤 등 춤의 종류도 다양하다.

전시에는 춤을 소재로 한 판화작업과 '박꽃누나' 연작, '메아리 소년' 연작, 서민의 애환을 담은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이 모였다. 평생 스케치북을 끼고 다니며 수시로 그림을 그렸던 오윤의 드로잉만 모은 별도의 전시장도 마련된다.

오윤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의 글을 인용해 본다(윤범모, 「4·19 혁명과 미술-서울대 미술대의 경우를 중심으로」 『조형-아카이브』, 2012.).

4월 혁명정신은 즉자적으로 미술작품과 미술운동으로 직결되지 않았다. 그만큼 속

성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술대에서 현실의식을 기치로 내걸고 출현한 예는 1969년의 현실동인이다. 오윤, 임세택, 오경환이 참여하여 전시회를 추진했지만 교수들의 만류로 불발되었다. 당시 발표한 선언문은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빛나는 문건으로 남게 되었다. 선언문은 김지하가 기초한 것이었다.



오윤, 애비

시인 김지하는 서울대 미술대학을 1959년 입학했고, 그가 입학했던 미학과는 1960년 문리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오윤의 누나 오숙희는 1962년 서울대 미술대에 입학했고, 오윤은 1964년 회화과 낙방 이후 1965년 조소과에 입학했다. 그러니까 김지하와 오윤의 교류는 1960년 4·19 무렵이라기보다 아마 1964년 한일협정 반대시위가 있던 무렵일 것이다. (년대에 대한 불확실한 기억을 감안하고) 김지하의 기억에 오윤과의 만남은 4·19혁명 무렵으로 남아 있고, 뒤에 1969년 <현실동인 제1선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과 동승하게 된다. 현실동인 가운데 오윤의 존재는 주목을 요한다. 다음은 오윤에 대한 김지하의 회고이다.

“오윤은 화가 오숙희 선배의 동생이고 오숙희 선배와는 1960년 4·19 직후 미술대학의 농성시위 때 친해졌다. 오 선배의 집에 처음 놀러 간 날, 그 어느 여름날 오후 유리창으로 길고 붉은 석양이 비쳐들 때 그 노을빛 속에서 빛을 뿜는 한 자그마한 기름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얼른 보아 똑 적탱(赤幀)이었다. 몇 개의 낮은 구름이 노을발에 붉고 둥그스름하게 누워 있었다. 그것은 젓가슴이었고 농염한, 우주적인 육욕이었다. 그것은 살아 생동하는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 너머의 시퍼런 하늘은 잔혹한 금기요, 죽음을 선고하는 신의 무서운 눈초리요, 가차 없는 파멸의 숙명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자그마한 그림이 미소짓고 있었다. 앙드레 말로의 저 '침묵의 소리'가운데서도 절정으로 평가되는 반항의 아름다움들, 희랍 흥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최초의 미소, 신에 대한 반역의 시작을 알리는 불륜한 '육욕의 상징'이었던 그 얇은 미소, 불그스름한 살의 웃음! 나는 소스라쳐 놀라 오 선배에게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오 선배는 대답 대신 이미 문 안에 들어서고 있는 동생 오윤을 손으로 가리켰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가. “윤입니더.” 나는 정신 잃은 사람처럼 웃어댔고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 대었다. 탕화를 비롯한 돈황 불교미술과 고려미술을 잘 보라고, 단원과 해원을 잘 보라고, 프랑수와 라블레를 가능한 한 영어로라도 읽으라고, 브뤼헬을 재평가하라고, 그리고 멕시코의 시케이로스과 디에고 리베라를 깊이 공부하라고 침 없이 주문한 것 같다. 그 뒤로 자주, 내 집처럼 드나들며

오윤과 친해진 그 집,-그 뒤 오윤은 미술대에 입학하였고 내 영역에 자주 드나들었다.”



김지하는 오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오윤은 저승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승에서 살아있는 ‘초월적 중력의 길’을 걸어갔다고 본다. 여기서 초월적 중력은 마술적 리얼리즘이나 환상적 사실 또는 추상적 구상쯤이 된단다. 구체적으로 붉은 우주의 춤을 축약, 바로 그 춤의 예감한 바, 1969년의 일이었다. 바로 ‘현실’동인시절 오윤의 큰 그림에서 무시무시할 정도의 역동성을 보았다는 것. 오윤의 <도깨비>나 <원귀도> 같은 작품에서 김지하는 중력적 초월이라는 생명과 그것을 벗어난 큰 평화를 읽는다. 그것은 韓流의 진정한 선구, 혹은 흰 그늘이다. 1960년대의 미술계에서 4월 혁명정신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혁명정신은 60년대 말 ‘김지하-오윤’의 연결고리를 매개로 하여 승계되었다. 오윤은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의 핵심적 작가로 활동했고, 민중미술 운동의 횃불을 든 ‘현실과 발언’ 동인의 대부분은 서울대 미술대 출신이었다.

03

부록

연수대상자 명단

강사평가 설문조사표

이수증 출력방법

울산교육연수원 신청사 안내도

생활 속 거리두기 연수 중 단계별 지침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울산 愛(애) 한바퀴 직무연수(5기)』
연수대상자 명단(40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차량
1	구영초등학교	교사	임은정	1조
2	남산초등학교	교사	조영주	1조
3	남산초등학교	교사	조정옥	1조
4	남외초등학교	교사	노종효	1조
5	내항초등학교	교사	변정희	1조
6	대현초등학교	교사	제갈일순	1조
7	매산초등학교	교사	정윤희	1조
8	미포초등학교	교사	김진희	1조
9	백합초등학교	교사	하경란	1조
10	범서초등학교	교사	천주미	1조
11	삼일초등학교	교사	박미정	1조
12	상진초등학교	교사	박재갑	1조
13	성동초등학교	교감	유혜정	1조
14	양사초등학교	교사	김영화	1조
15	옥서초등학교	교사	장소영	1조
16	옥서초등학교	교사	진은경	1조
17	옥성초등학교	교사	한영희	1조
18	전하초등학교	교사	정경희	1조

19	화봉초등학교	교사	황경숙	2조
20	남외중학교	교감	방경애	2조
21	무거중학교	교사	정효선	2조
22	상안중학교	교사	성미정	2조
23	신언중학교	교사	정현석	2조
24	연암중학교	교장	신복순	2조
25	외슬중학교	교사	진정희	2조
26	울산중학교	교사	최정우	2조
27	장검중학교	교사	장소영	2조
28	천곡중학교	교사	정환경	2조
29	화봉중학교	교장	심말선	2조
30	화봉중학교	교사	전소영	2조
31	화암중학교	교감	조혜영	2조
32	대송고등학교	교사	김정남(추가)	2조
33	매곡고등학교	교사	박용선	2조
34	매곡고등학교	교사	최정미	2조
35	무룡고등학교	교사	최향애	2조
36	울산강남고등학교	교사	홍현정	2조
37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이수조	2조
38	화암고등학교	교사	서혜지	2조
39	화암고등학교	교사	정현정	2조
40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윤수진	2조

*소속명 가나다 순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평가 설문응답지

과정명: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울산 愛(애) 한바퀴(현장체험) 직무연수

구분	설문내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 총괄	1. 연수목표를 달성하였다.					
	2. 본 과정의 이수가 자기계발 또는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육 과정 편성	3. 교육과정 편성이 적절하였다.					
	4. 강사 선정이 적절하였다.					
	5.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었다.					
	6. 교육기자재 편의시설 및 연수환경에 만족하였다.					
강사 만족도	7. 강사 만족도					

이수증 출력 방법 안내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1.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접속하기

=> <https://edu.ueti.or.kr>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기



● 로그인 방법 (2가지)

가. 로그인 :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하기

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LOGIN) ②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인증서정보> - <인증서 검색>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확인> - <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은 한번만 하시면 계속해서 사용(개인정보보호)

3. 이수증발급 버튼 클릭하기



3. 화면 좌측 이수증발급 클릭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창의적인 선진 연수
교육연수원은 조직원 연수 및 학생 영아체험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건육성과 미래지향적인 학생상 정립을 위해 다양한 연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의학습방

● 이수증발급 홈 > 나의학습방 > 이수증발급

10 / 전체목록 : 13건

선택	번호	교육구분	과정구분	수강과정(년도/기수)	학습기간
<input type="radio"/>	13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2013년도 제6차 맞춤형 원격직무연수(학교 컨설팅장학 운영 지원)(2013 - 1)	2013.11.05 ~ 2013.11.19
<input type="radio"/>	12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교육전문직 역량강화(스마트교육을 활용한 교실혁명) 원격연수(2013 - 1)	2013.09.09 ~ 2013.09.27

4. 발급하실 과정 및 선택 체크 후 인쇄화면 클릭

● 이수증발급 홈 > 나의학습방 > 이수증발급

10 / 전체목록 : 13건

인쇄화면 >

선택	번호	교육구분	과정구분	수강과정(년도/기수)	학습기간
<input type="radio"/>	13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2013년도 제6차 맞춤형 원격직무연수(학교 컨설팅장학 운영 지원)(2013 - 1)	2013.11.05 ~ 2013.11.19
<input type="radio"/>	12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교육전문직 역량강화(스마트교육을 활용한 교실혁명) 원격연수(2013 - 1)	2013.09.09 ~ 2013.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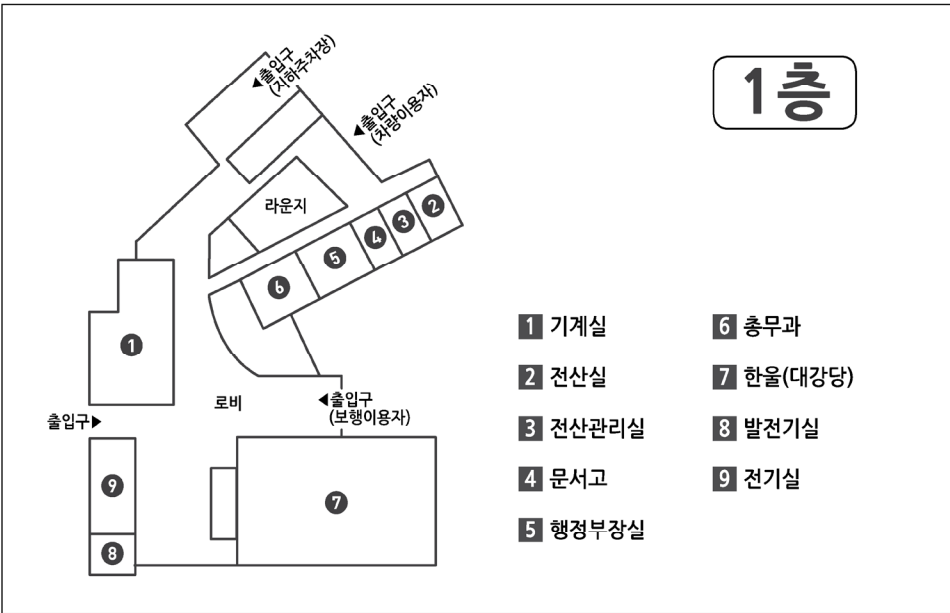
5. 프린트 모양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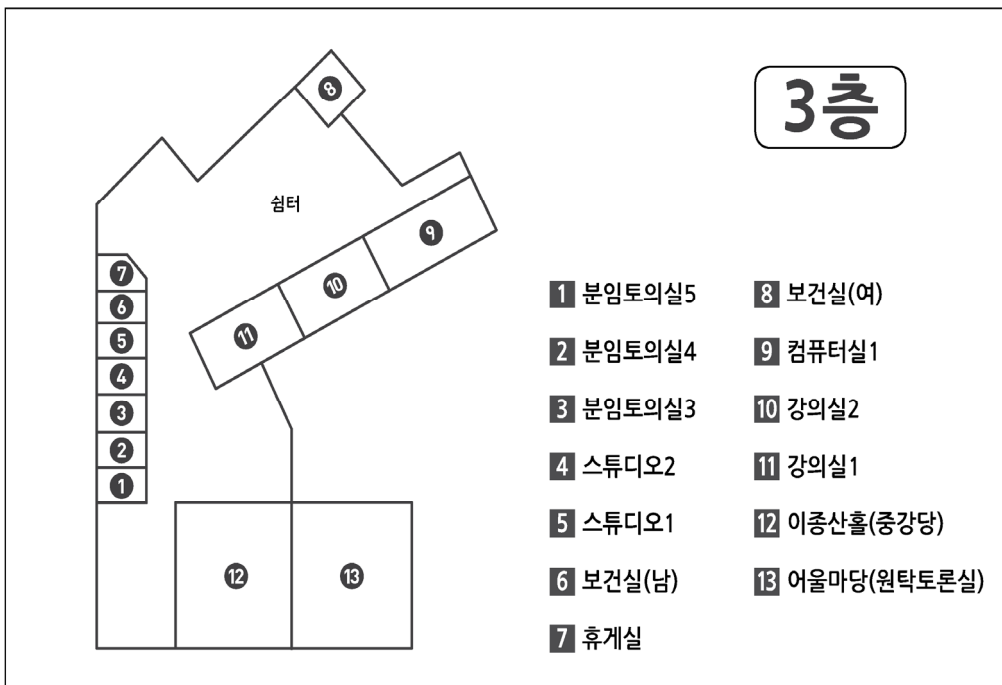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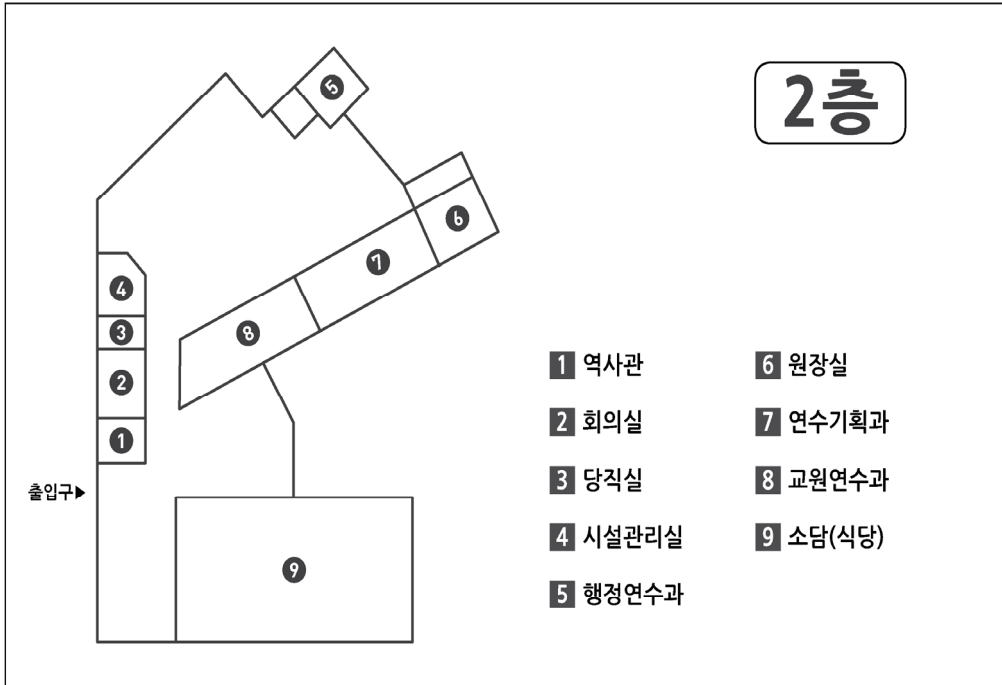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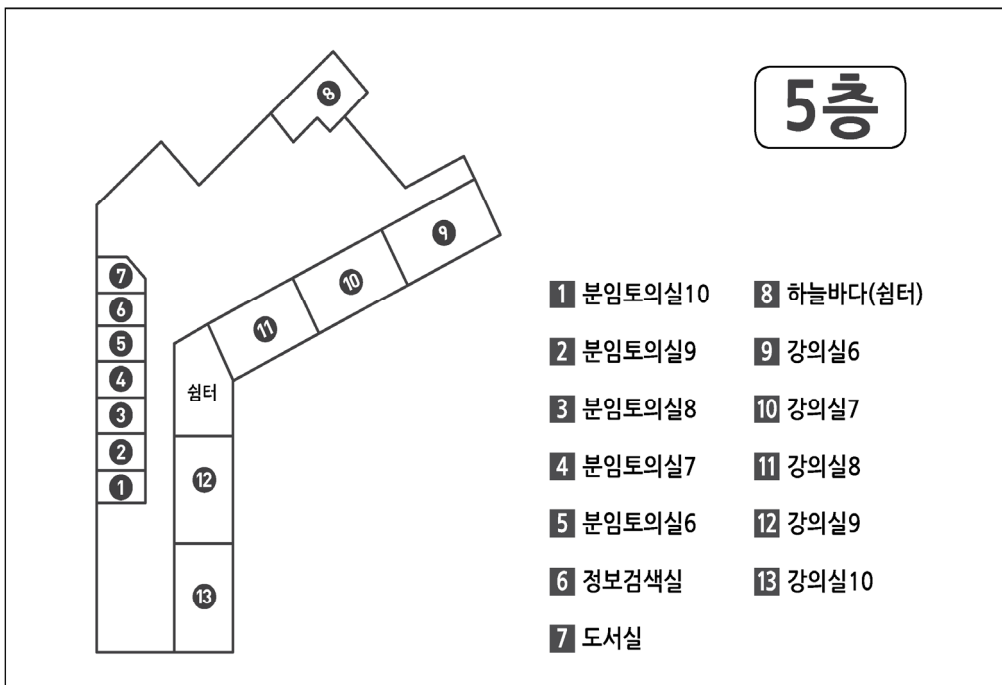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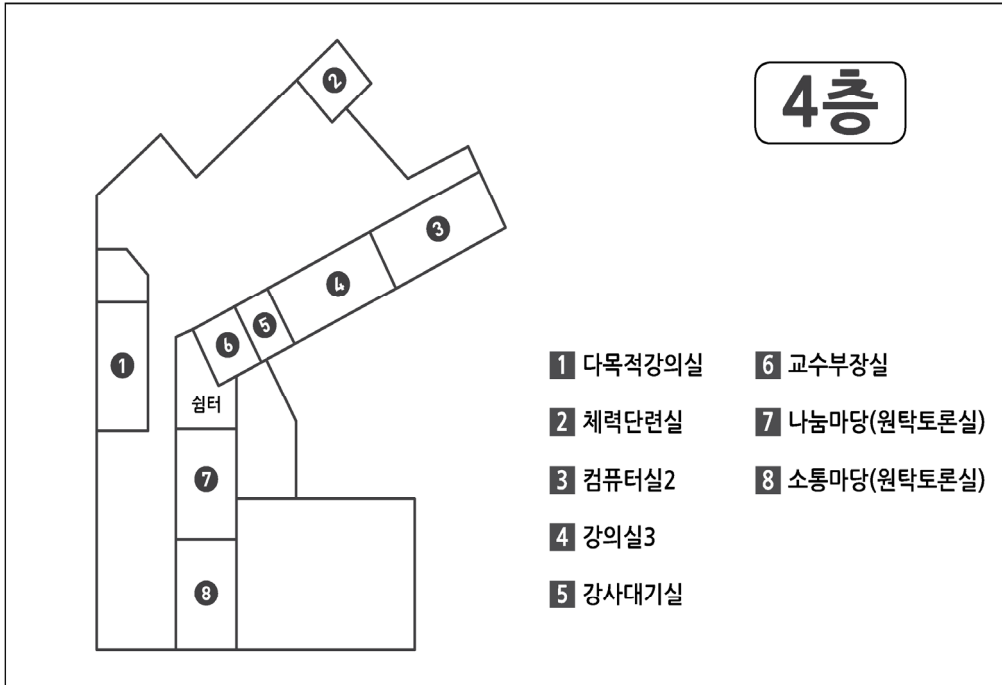
기타 문의사항	연수과정 담당자
	교육연구사 현미윤 ☎ (052-250-0527)

울산교육연수원 안내도

【울산교육연수원】 강동 신청사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연수 운영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 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 코로나19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유연한 대응
- (기본원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몸 밖 배출 최소화,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수칙을 알고 실천해 공동체를 보호

□ 출근 전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는 경우 담당연구사에게 연락

□ 도착 시

- 건물 앞쪽으로만 출입
- 건물 현관에서 발열 체크 및 확인/확인결과 작성
- 손 소독제 사용

□ 연수 진행 시

- 자연환기가 가능하게 연수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문을 상시 열어두기
- 개인 텀블러 등 개인 소품 사용하기

- (강사)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담당연구사) 연수 시작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급식 시

-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 연수 종료 후

- 연수생은 연수종료 후 14일 동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담당연구사에게 연락

□ 공통

- 건물 앞쪽으로만 출입
-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 가리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현관 발열 체크는 출근 시, 점심 식사 후 입장 시 2회 실시
- (연수 중 이상증후 발생 시) 남, 여 보건실로 이동/격리 후 담당연구사에게 연락한 다음 매뉴얼에 따라 조치